



중 2회는 파상풍도 함께 했습니다. 그밖에 뇌염이 5회, 인플루엔자가 3회로 아이가 태어나서 주사를 맞은 것은 모두 12번입니다.

이밖에 우두가 2회 BCG가 3회있습니다마

맞은 것은 12번이 옳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설명 범위 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없지 않다.

그것은 튜버크린반응을 잊어 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예방접종으로서 BCG를 3회했다면 BCG를 하기전에 튜버크린 반응을 검사하지 않을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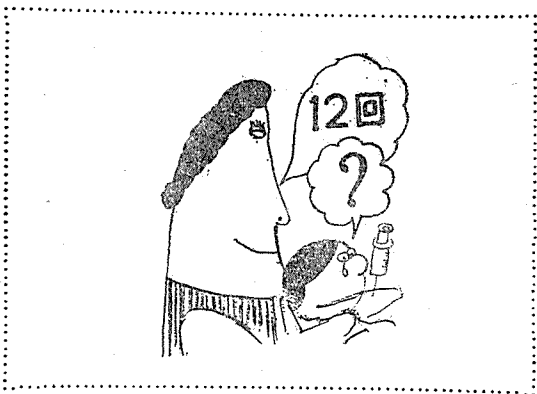
따라서 BCG를 3회나 하고 있는 이상 튜버크린 반응은 음성이였을 것이고 적어도 튜

## 주사 맞은 회수는 12번이 옳은가

이제 국민학교에 들어 갈 아이에 대해서 그 어머니가 말했다.

우리애는 아주 건강해서 병때문에 의사를 찾은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단지 주사를 맞았다면 예방주사 뿐입니다. 건강기록표도 있습니다마는 예방접종만은 정확히 실천했습니다.

디프테리아와 백일해의 혼합왕진이 4회 그



는 이것은 모두 주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주사침으로 맞은 회수가 정말로 그 어머니가 말 한대로 12번이 옳은가?

아기 어머니의 기억이 옳다면 주사침으로

머그린 검사를 3회 이상 하였다가 것이 된다. 왜냐하면 각종 예방접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튜버크린 반응도 해마다 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튜버크린반응은 3회 이상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3회의 BCG 접종을 하였던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그 사이에 튜버클린 반응이 양성내지의 양성(疑陽性)을 나타냈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결국 튜버클린 반응은 주사로서 검사를 하는 것이므로 주사침을 맞는 회수는 12회에 3회를 더하고 여기다가 알파를 더하는 것이 옳은 답이라고 생각된다.

## 푸른 아이와 누른 아이

마누라가 임신을 했다는 말을 듣고 H는 걱정이 되었다. A형과 O형 사이에는 혈액형 부적합때문에 갓난 아기의 증증황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해서다. H는 병원에 근무하는 친구를 찾아가서 의견을 한 결과 친구인 산부인과 의사의 설명을 듣고 약간 마음을 안정시켰으나 걱정은 떠나지 않았다.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다. 병원복도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H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오지 않았다. 분길한 예감마저 틀었다.

한참만에 친구인 의사가 닥아와서 이제 막 낳았다. 애기엄마는 건강한데 아기는 푸른아기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하자고 하면서 급히 사라졌다. H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 누른 아이가 아니고 푸른 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태어난 아기에게 어떤 일이 생긴 것일까?

H군의 아기는 태어나면서 지아노제 증상을 나타냈기 때문에 친구인 의사가 푸른 아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지아노제란 피부와점막이 푸르게 되는 현상이다. 혈액속의 산소가 적어져서 핏색이 검게 될때 생기는 현상이다. 동맥혈의 색이 밝은데 비하여 정맥혈색이 검은 것은 산소가 많으나 적으냐의 차이에서 생기는 것이다.

지아노제에도 전신성(全身性)인 것과 국소

성(局所性)인 것이 있는데 전신성 심강질환으로 동맥혈속에 정맥혈이 흘러든다든지 동맥혈 그 자체가 부족하면 전신성 지아노제를 나타내고 팔이나 손가락을 심하게 누르면 끝머리가 푸르게 되는 국소성 지아노제를 볼 수 있다.

이 아이는 폐동맥협착, 심실중격결손, 대동맥우방전위, 우심실 비대현상을 동시에 일으키는 파로 4중후를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푸른 아이는 노란아이처럼 교환수혈이나 수술로도 완전히 고칠수 없다는데서 불행한 아기가 될 가능성이 많다. 자주 사용하지 말았으면 하는 용어이다.